역사문제와 한일 및 한중관계 관련 여론조사

결과 보고서

2024. 08.

역사문제와 한일 및 한중관계 관련 여론조사

CHAPTER

I

조사 개요

01 조사 설계

구 분	내 용
모 집 단	· 전국에 거주하는 만18세~39세 성인남녀
표 집 틀	·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 온라인 패널에서 무작위 추출
표본크기	· 1,000명
표본추출	· 2024년 6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권역별, 성별, 연령별 인구구성비에 맞게 무작위 추출
표본오차	·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, 95%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±3.1%p
조사방법	· 온라인 조사를 활용한 CAWI/CAMI
가 중 치 부여방식	· 권역별, 성별, 연령별 가중치 부여(셀가중) (2024년 6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)
조사일시	2024년 7월 22일(월) ~ 7월 30일(화)(8일간)
조사기관	· (주)한국리서치 (대표이사 노익상)

02 조사 내용

구 분	내 용
본 문항	**[공통]** · 일본/중국에 대한 호감도 · 일본/중국에 대한 신뢰도 · 일본/중국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· 일본/중국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 · 한일/한중 관계 관심도 · 한일/한중 관계 인식 · 한일/한중 관계 개선 필요성 · 한일/한중 관계 개선 필요 이유 · 한일/한중 관계 개선 불필요 이유 · 향후 한일/한중 관계 전망 · 한일, 한중 역사문제 지식 습득 매체 · 역사문제와 한일/한중 관계 · 한일/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 · 한일/한중 협력 필요 분야 **[일본]** · 일본의 사죄와 반성 인지도/인식 · 일본이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 · 새로운 공동선언의 필요성 · 새로운 공동선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**[중국]** · 중국의 역사 왜곡 인지도 · 중국의 문화 원조 논란 인지도 · 중국의 역사 연표 논란 인지도 · 중국의 역사 및 문화 관련 논란 심각성 · 역사문제와 한중관계
배경문항	· 학력 · 직업 · 이념성향

03 조사 응답자 특성

(단위 : 명, %)

전체	사례수 (명)	비율
▣ 전체 ▣	(1,000)	100.0
성별		
남성	(523)	52.3
여성	(477)	47.7
연령		
만18~24세	(267)	26.7
만25~29세	(248)	24.8
만30~34세	(252)	25.2
만35~39세	(233)	23.3
권역		
서울	(216)	21.6
인천/경기	(342)	34.2
대전/세종/충청	(104)	10.4
광주/전라	(84)	8.4
대구/경북	(84)	8.4
부산/울산/경남	(134)	13.4
강원/제주	(36)	3.6
학력		
고등학교 졸업 이하	(129)	12.9
대학교 재학 및 졸업	(807)	80.7
대학원 졸업	(64)	6.4
직업		
농/임/어업	(5)	0.5
자영업	(37)	3.7
판매/영업/서비스직	(76)	7.6
생산/기능/노무직	(69)	6.9
사무/관리/전문직	(411)	41.1
주부	(33)	3.3
학생	(249)	24.9
무직/퇴직/기타	(106)	10.6
모름/무응답	(14)	1.4
이념성향		
진보	(228)	22.8
중도	(488)	48.8
보수	(182)	18.2
모름/무응답	(102)	10.2

역사문제와 한일 및 한중관계 관련 여론조사

CHAPTER

II

조사 결과 요약

1. 일본, 중국 공통 문항

- 2030세대(만18세~39세)에 대해 일본 및 중국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결과, 전반적으로 중국보다는 일본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특히, 중국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는 10명 중 9명은 부정적임
- 개선 필요성에 있어서는 과반 이상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, 향후 관계에 있어서는 절반 가량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
- 한일, 한중관계 개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"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(1+2순위 기준, 일본 74.3%, 중국 84.6%)"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, 한일, 한중 협력분야도 "경제, 무역, 금융(1+2순위 기준, 일본 65.3%, 중국 59.8%)"이 가장 높아 경제적인 부분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남

전체		사례수 (명)	긍정	보통*	부정	잘모르겠다	계
호감도	일본	(1,000)	**57.3**	-	35.1	7.6	100.0
	중국	(1,000)	10.1	-	**86.2**	3.7	100.0
신뢰도	일본	(1,000)	35.1	-	**58.8**	6.1	100.0
	중국	(1,000)	6.1	-	**90.8**	3.1	100.0
관심도	일본	(1,000)	**78.9**	-	21.1	-	100.0
	중국	(1,000)	**53.4**	-	46.6	-	100.0
관계 인식	일본	(1,000)	16.2	**52.8**	30.1	0.9	100.0
	중국	(1,000)	3.6	33.9	**57.6**	4.9	100.0
개선 필요성	일본	(1,000)	**61.9**	-	32.5	5.6	100.0
	중국	(1,000)	**51.3**	-	39.4	9.3	100.0
관계 전망	일본	(1,000)	28.8	**50.4**	10.9	9.8	100.0
	중국	(1,000)	14.1	**49.4**	25.2	11.3	100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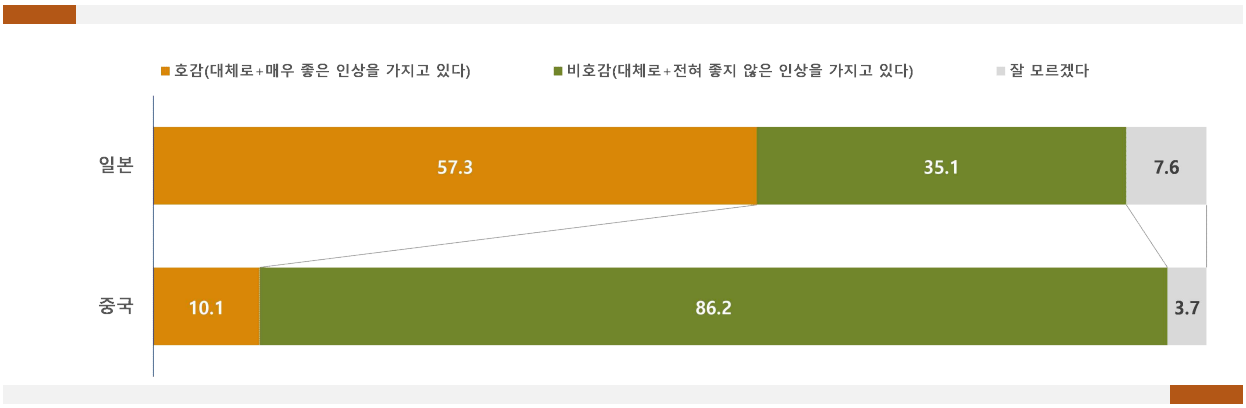
*보통
- 관계 인식: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
- 관계 전망: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

1) 일본, 중국에 대한 호감도

- 일본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, '호감'(대체로+매우 좋은 인상) 응답이 57.3%로 '비호감'(대체로+전혀 좋지 않은 인상) 응답(35.1%) 대비 22.2%p 높음
-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, '호감'(대체로+매우 좋은 인상) 응답이 10.1%로 '비호감'(대체로+전혀 좋지 않은 인상) 응답(86.2%) 대비 76.1%p 낮음
-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중국에 대한 호감도 대비 47.2%p 더 높음

그림 1 | 일본, 중국에 대한 호감도

n=전체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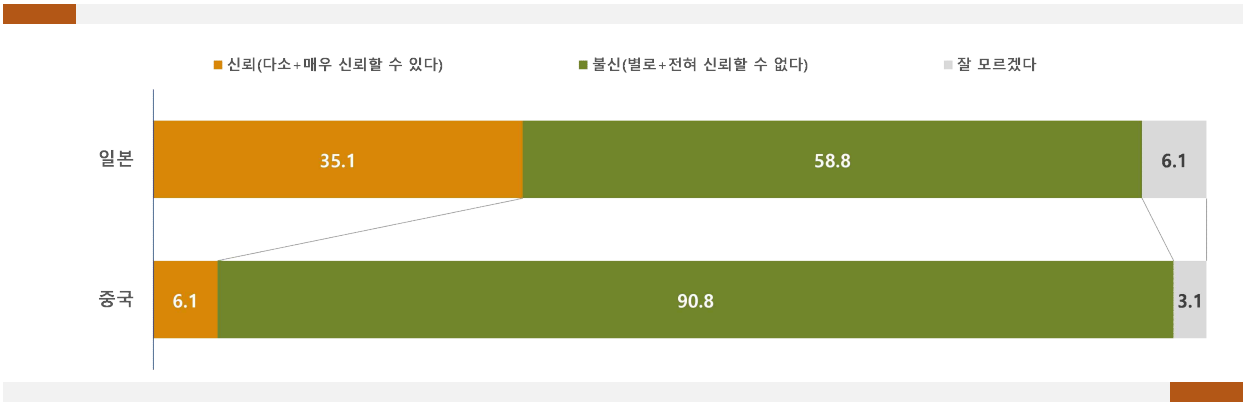


2) 일본, 중국에 대한 신뢰도

- 일본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, '신뢰'(다소+매우 신뢰할 수 있다) 응답이 35.1%로 '비신뢰'(별로+전혀 신뢰할 수 없다) 응답(58.8%) 대비 23.7%p 낮음
- 중국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, '신뢰'(다소+매우 신뢰할 수 있다) 응답이 6.1%로 '비신뢰'(별로+전혀 신뢰할 수 없다) 응답(90.8%) 대비 84.6%p 낮음
- 일본에 대한 신뢰도가 중국에 대한 신뢰도 대비 29.0%p 더 높음

그림 2 | 일본, 중국에 대한 신뢰도

n=전체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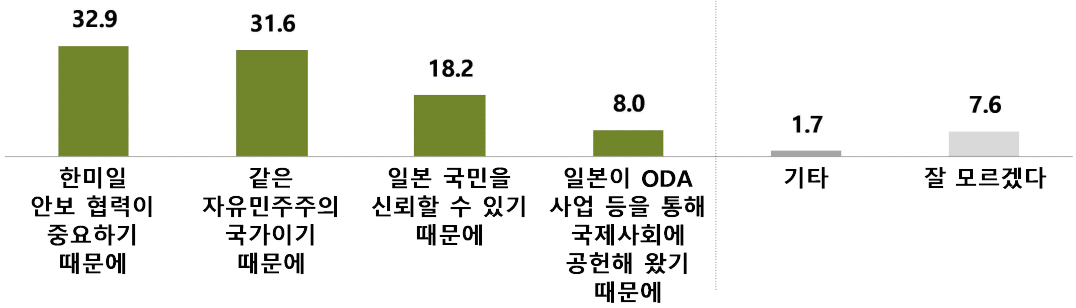


3) 일본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

○ 일본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신뢰 이유를 조사한 결과, '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'라는 응답이 32.9%로 가장 높았음

그림 3 | 일본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

n(일본 신뢰)=351명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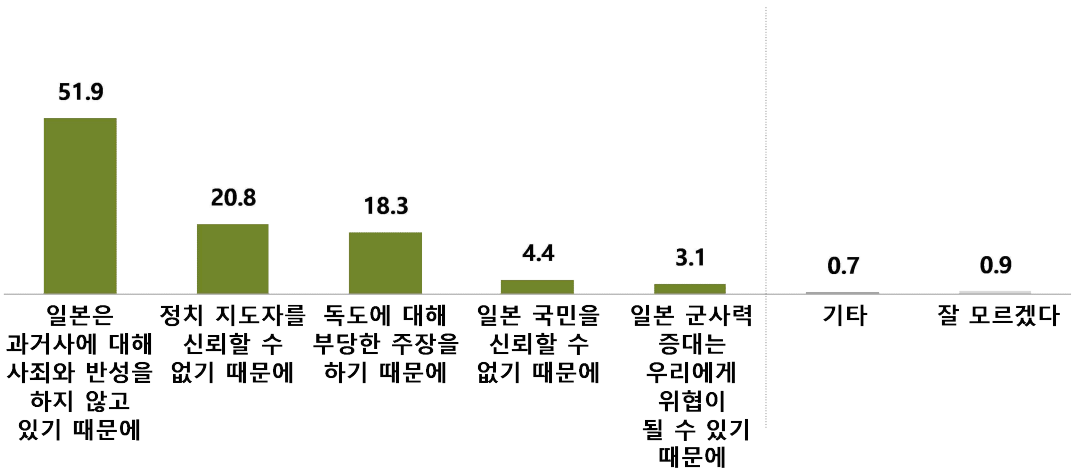


4) 일본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

○ 일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비신뢰 이유를 조사한 결과, '일본은 과거사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'라는 응답이 51.9%로 가장 높았음

그림 4 | 일본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

n(일본 불신)=588명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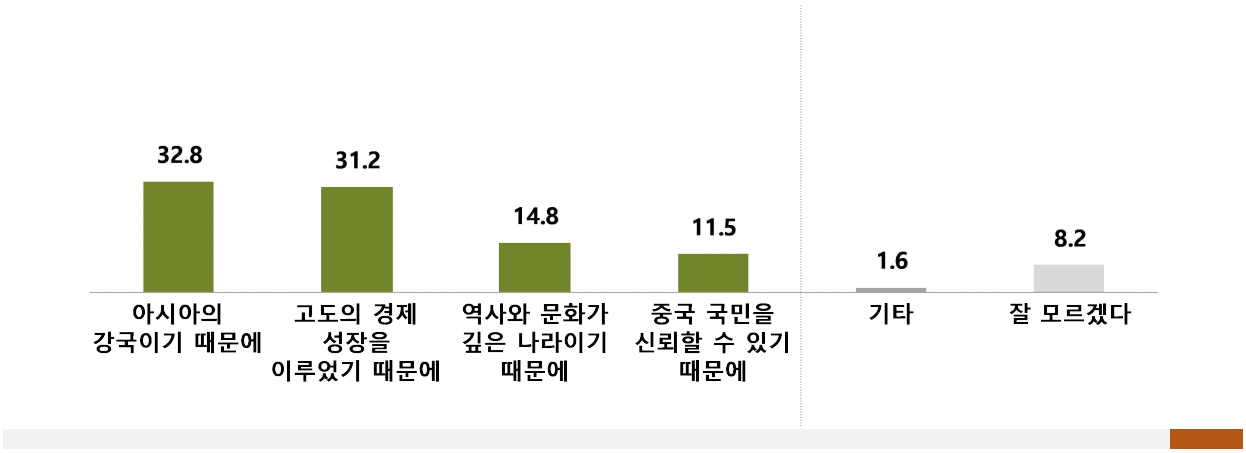


5) 중국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

○ 중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신뢰 이유를 조사한 결과, '아시아의 강국이기 때문에'라는 응답이 32.8%로 가장 높았음

그림 5 | 중국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

n(중국 신뢰)=61명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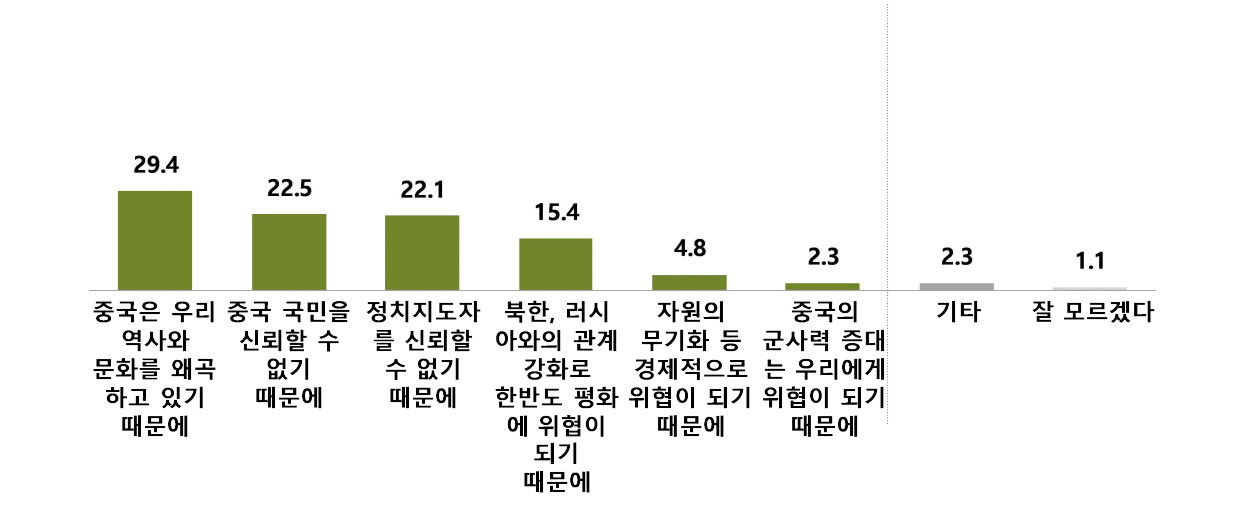


6) 중국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

○ 중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비신뢰 이유를 조사한 결과, '중국은 우리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'라는 응답이 29.4%로 가장 높았음

그림 6 | 중국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

n(중국 불신)=908명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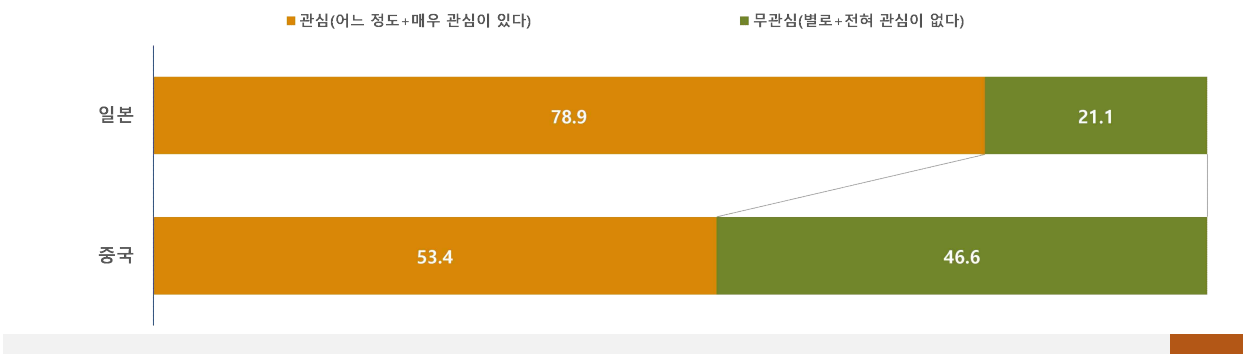


7) 한일관계, 한중관계 관심도

- 한일관계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, '관심'(어느 정도+매우 관심이 있다) 응답이 78.9%로 '무관심'(별로+전혀 관심이 없다) 응답(21.1%) 대비 57.7%p 높음
- 한중관계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, '관심'(어느 정도+매우 관심이 있다) 응답이 53.4%로 '무관심'(별로+전혀 관심이 없다) 응답(46.6%) 대비 6.8%p 높음
- 일본에 대한 관심도가 중국에 대한 관심도 대비 25.5%p 더 높음

그림 7 | 한일관계, 한중관계 관심도

n=전체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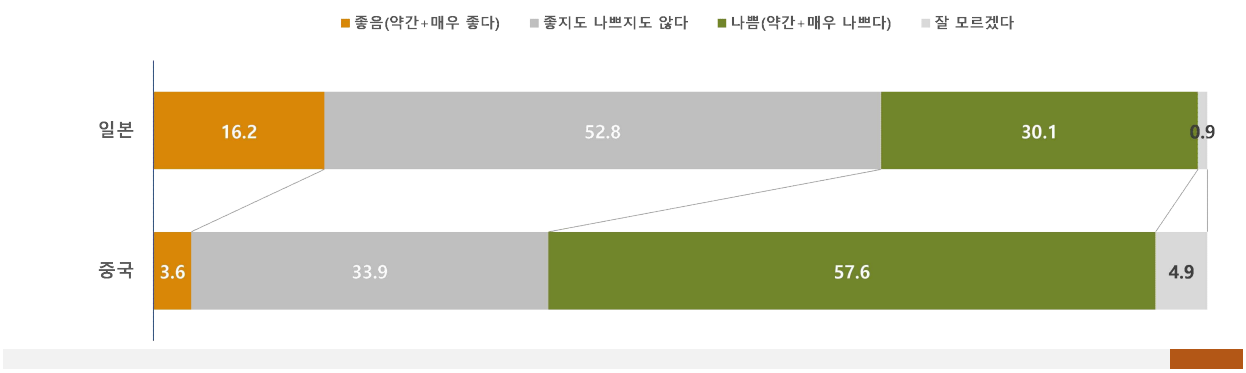


8) 한일관계, 한중관계 인식

- 현재 한일관계가 어떤지 인식을 조사한 결과, '좋음'(약간+매우 좋다) 응답이 16.2%로 '나쁨'(약간+매우 나쁘다) 응답(30.1%) 대비 13.8%p 낮음
- 현재 한중관계가 어떤지 인식을 조사한 결과, '좋음'(약간+매우 좋다) 응답이 3.6%로 '나쁨'(약간+매우 나쁘다) 응답(57.6%) 대비 54.0%p 낮음
- 한일관계보다 한중관계가 나쁘다는 응답이 27.5%p 더 많음

그림 8 | 한일관계, 한중관계 인식

n=전체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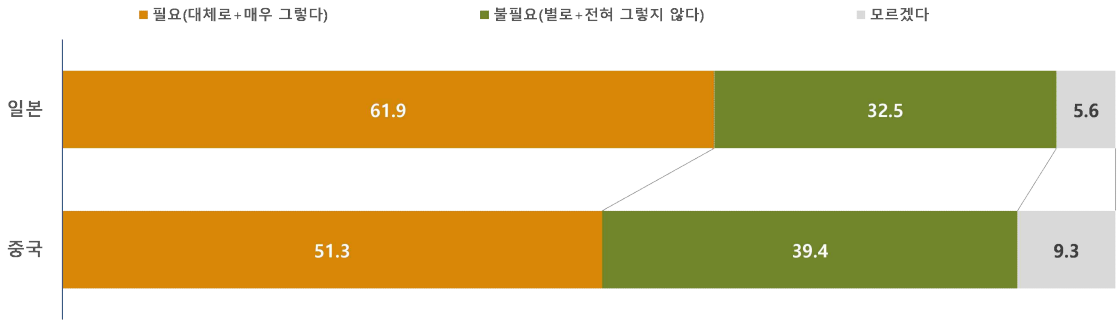


9) 한일관계, 한중관계 개선 필요성

-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, '필요'(대체로+매우 그렇다) 응답이 61.9%로 '불필요'(별로+전혀 그렇지 않다) 응답(32.5%) 대비 29.4%p 높음
- 한중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, '필요'(대체로+매우 그렇다) 응답이 51.3%로 '불필요'(별로+전혀 그렇지 않다) 응답(39.4%) 대비 11.8%p 높음
- 한일, 한중관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모두 과반을 넘는 가운데 일본과의 개선 필요 응답이 중국과의 개선 대비 10.6%p 더 높음

그림 9 | 한일관계, 한중관계 개선 필요성

n=전체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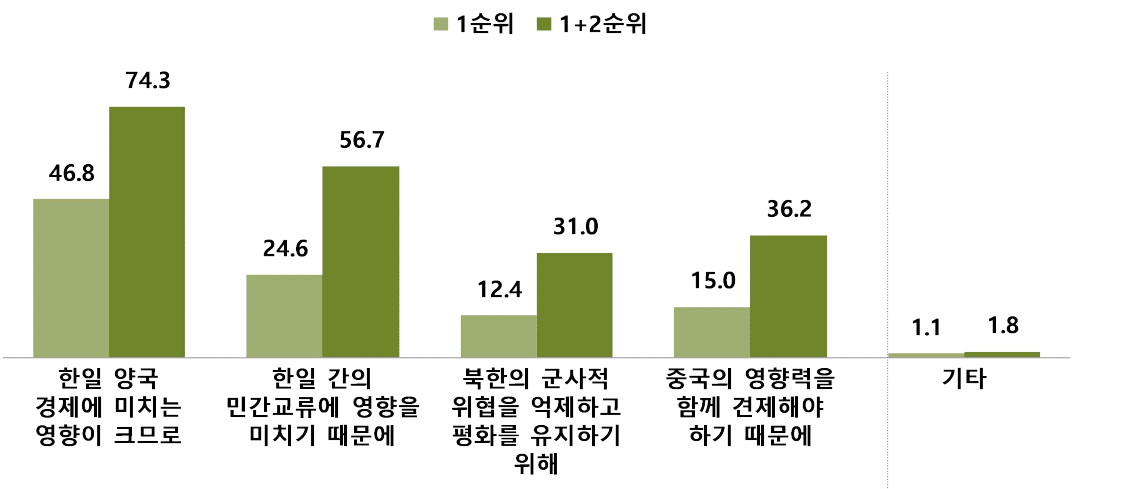


10) 한일관계 개선 필요 이유

-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필요 이유를 조사한 결과, 1순위 응답 기준 '한일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'이라는 응답이 46.8%로 가장 높음

그림 10 | 한일관계 개선 필요 이유(1순위,1+2순위)

n(한일관계 개선 필요)=619명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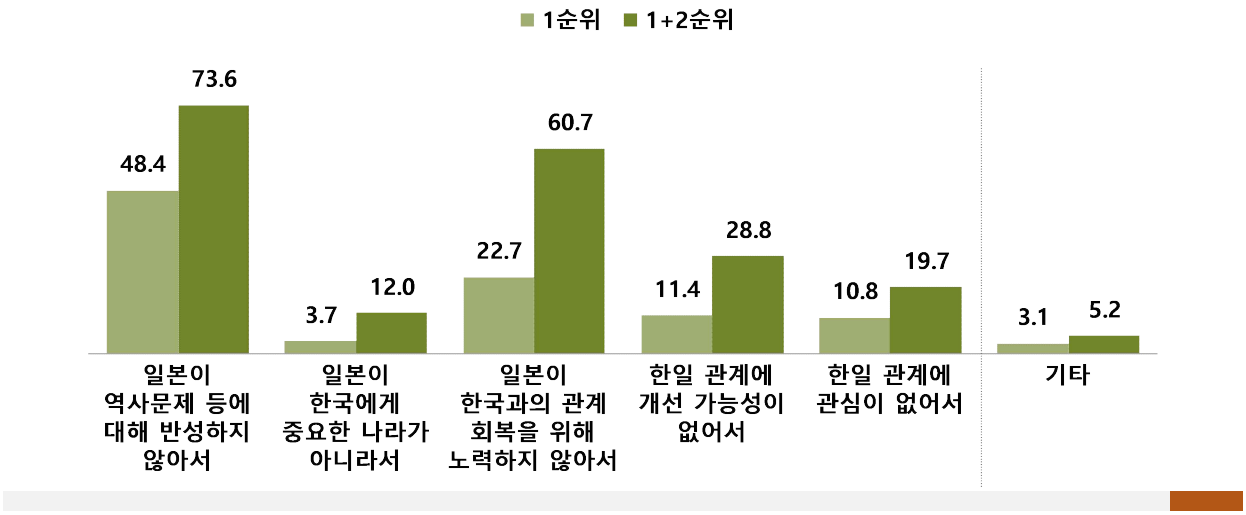


11) 한일관계 개선 불필요 이유

○ 한일관계 개선이 불필요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불필요 이유를 조사한 결과, 1순위 응답 기준 '일본이 역사문제 등에 대해 반성하지 않아서'라는 응답이 48.4%로 가장 높음

그림 11 | 한일관계 개선 불필요 이유(1순위, 1+2순위)

n(한일관계 개선 불필요)=325명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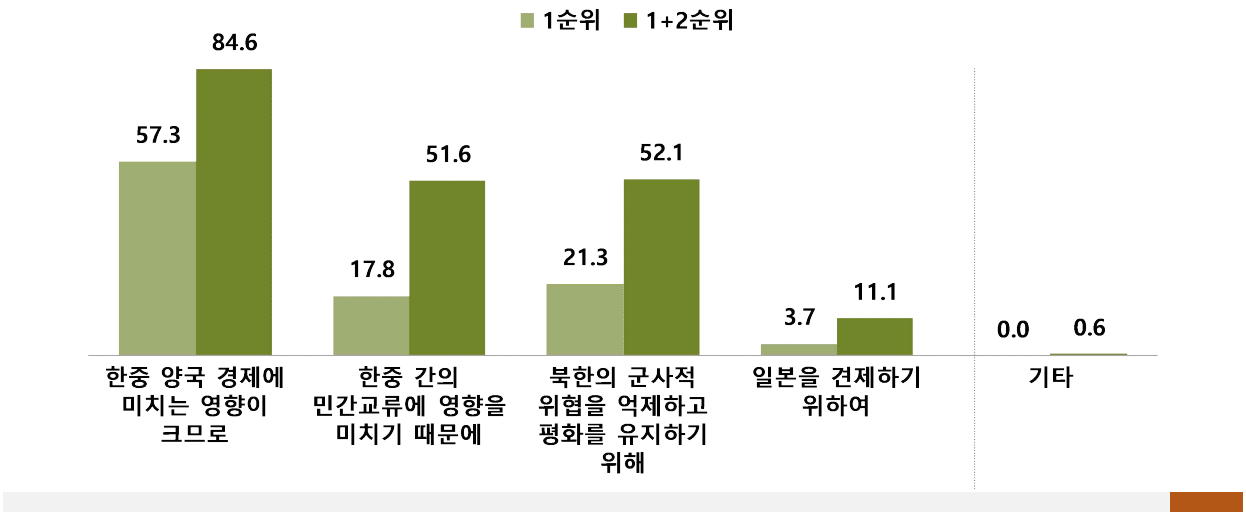


12) 한중관계 개선 필요 이유

○ 한중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필요 이유를 조사한 결과, 1순위 응답 기준 '한중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'라는 응답이 57.3%로 가장 높음

그림 12 | 한중관계 개선 필요 이유(1순위, 1+2순위)

n(한중관계 개선 필요)=513명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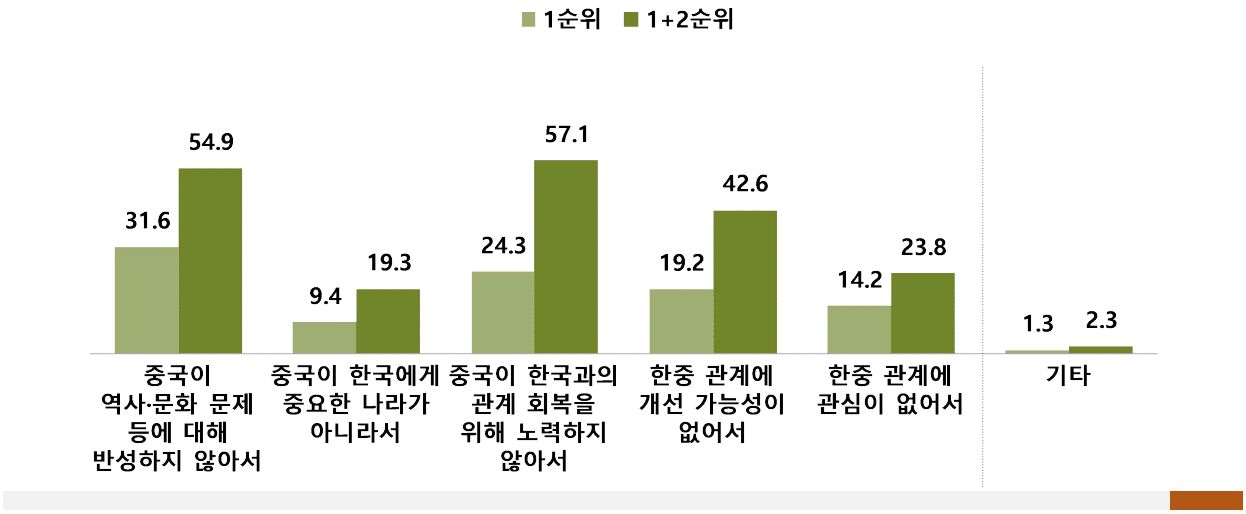


13) 한중관계 개선 불필요 이유

○ 한중관계 개선이 불필요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불필요 이유를 조사한 결과, 1순위 응답 기준 '중국이 역사·문화 문제 등에 대해 반성하지 않아서'라는 응답이 31.6%로 가장 높음

그림 13 | 한중관계 개선 불필요 이유(1순위, 1+2순위)

n(한중관계 개선 불필요)=394명 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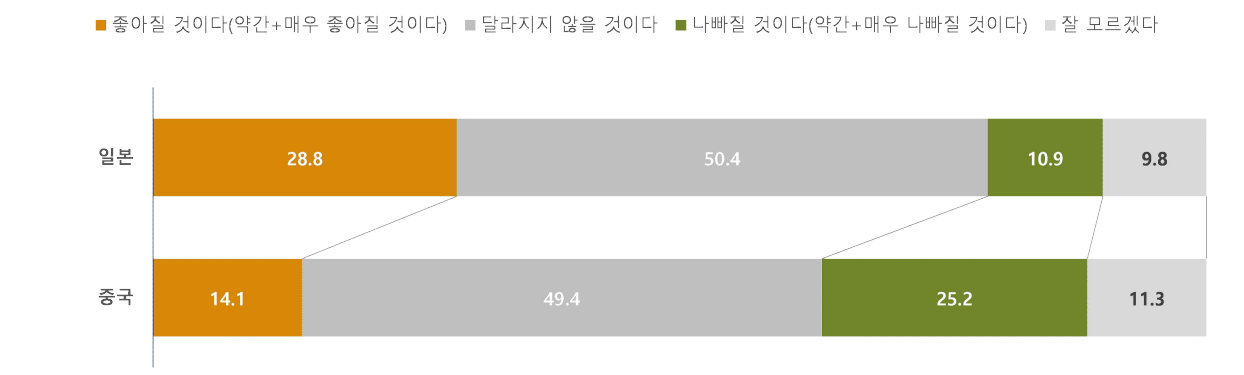
14) 향후 한일/한중 관계 전망

○ 향후 한일관계가 어떠할지 전망을 조사한 결과, '좋아질 것'(약간+매우 좋아질 것이다) 응답이 28.8%로 '나빠질 것'(약간+매우 나빠질 것이다) 응답(10.9%) 대비 17.9%p 높음향후 한중관계가 어떠할지 전망을 조사한 결과, '좋아질 것'(약간+매우 좋아질 것이다) 응답이 14.1%로 '나빠질 것'(약간+매우 나빠질 것이다) 응답(25.2%) 대비 11.0%p 낮음

○ 한일, 한중관계 전망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거의 과반을 차지하는 가운데, 한일관계는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응답이, 한중관계는 나빠질 것이라는 부정응답이 더 높음

그림 14 | 한일관계, 한중관계 전망

n=전체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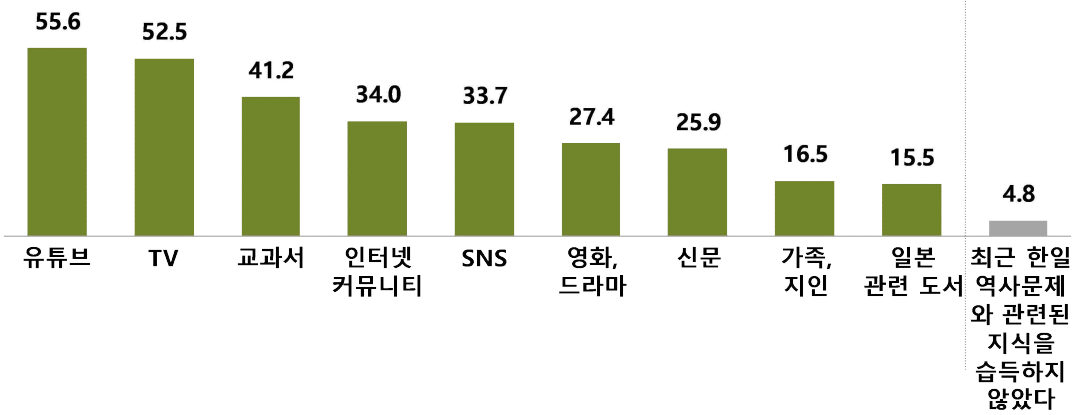


15) 한일 역사문제 지식 습득 매체

- 한일 역사문제와 관련된 지식 습득 매체를 조사한 결과, '유튜브' 응답이 55.6%로 가장 높았음
- 그다음으로, 'TV'(52.5%), '교과서'(41.2%), '인터넷 커뮤니티'(34.0%) 등의 순임

그림 15 | 한일 역사문제 지식 습득 매체

n=전체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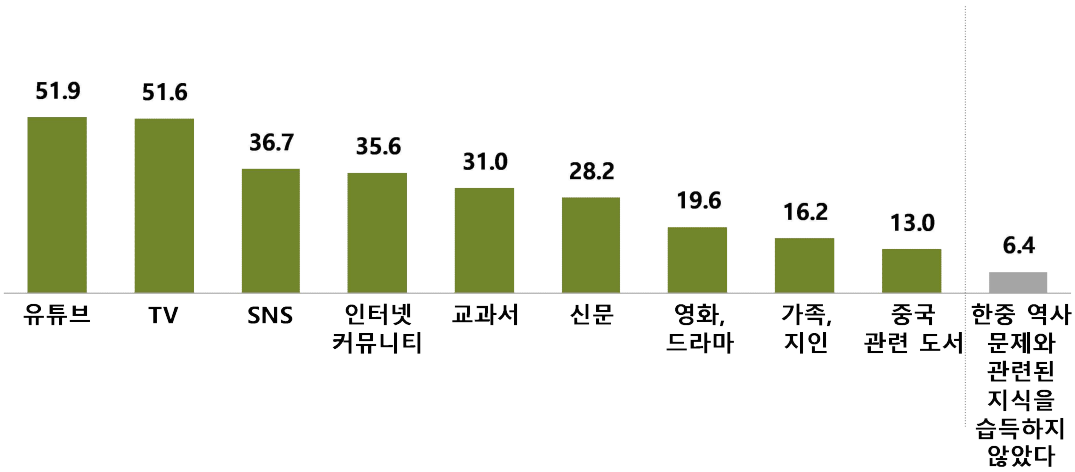


16) 한중 역사문제 지식 습득 매체

- 한일 역사문제와 관련된 지식 습득 매체를 조사한 결과, '유튜브' 응답이 55.6%로 가장 높았음
- 그다음으로, 'TV'(52.5%), '교과서'(41.2%), '인터넷 커뮤니티'(34.0%) 등의 순임

그림 16 | 한중 역사문제 지식 습득 매체

n=전체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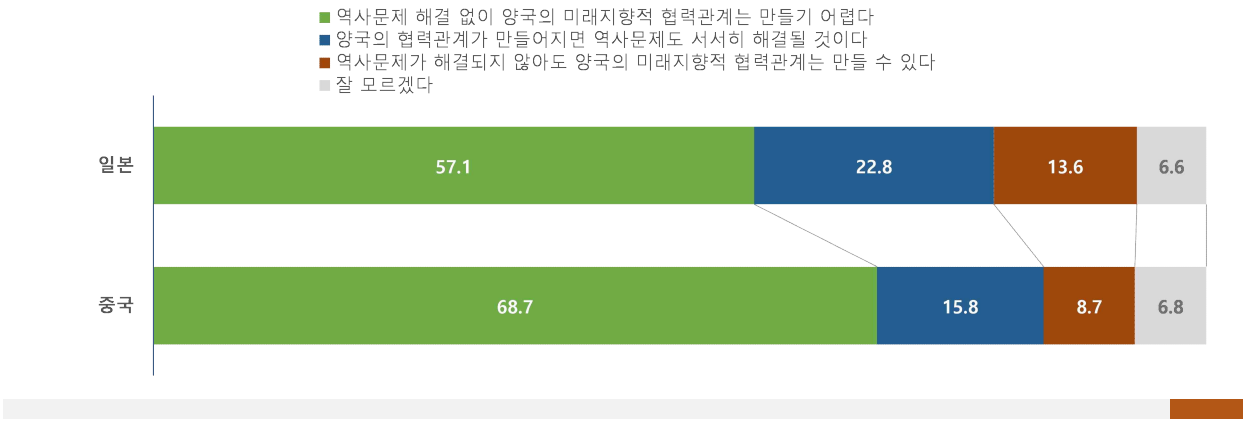


17) 역사문제와 한일/한중 관계

- 한국과 일본의 역사문제와 양국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, '역사문제 해결 없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는 만들기 어렵다'는 응답이 57.1%로 가장 높음
- 한국과 중국의 역사문제와 양국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, '역사문제 해결 없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는 만들기 어렵다'는 응답이 68.7%로 가장 높음

그림 17 | 역사문제와 한일/한중 관계

n=전체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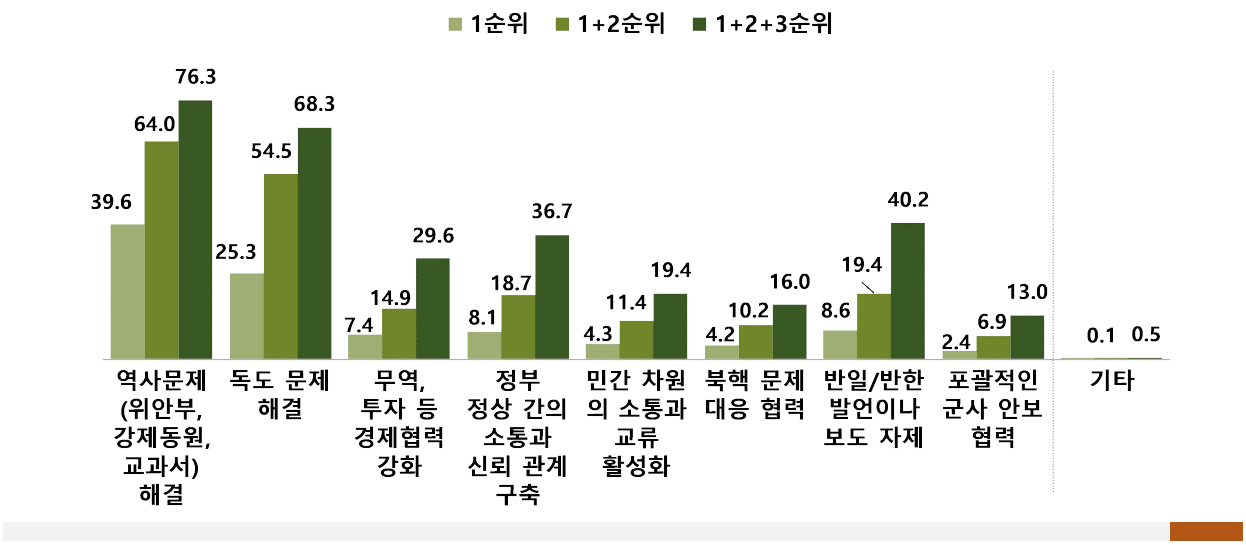


18)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

-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양국의 과제를 조사한 결과, 1순위 응답 기준 '역사문제(위안부, 강제동원, 교과서) 해결' 응답이 39.6%로 가장 높음

그림 18 |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(1순위, 1+2순위, 1+2+3순위)

n=전체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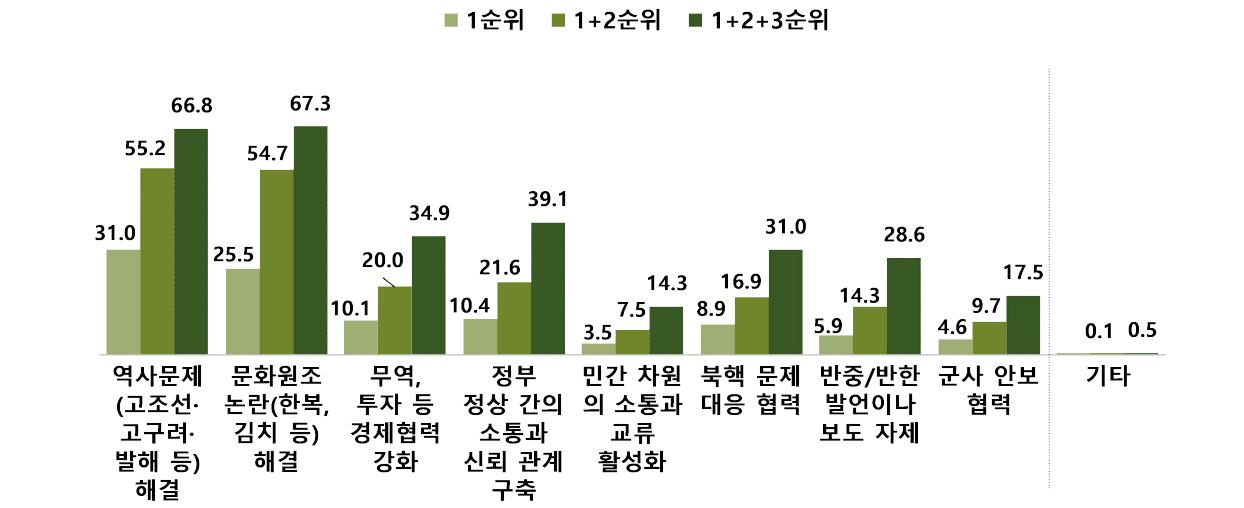


19)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

○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양국의 과제를 조사한 결과, 1순위 응답 기준 '역사문제(고조선·고구려·발해 등) 해결' 응답이 31.0%로 가장 높음

그림 19 |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(1순위, 1+2순위, 1+2+3순위)

n=전체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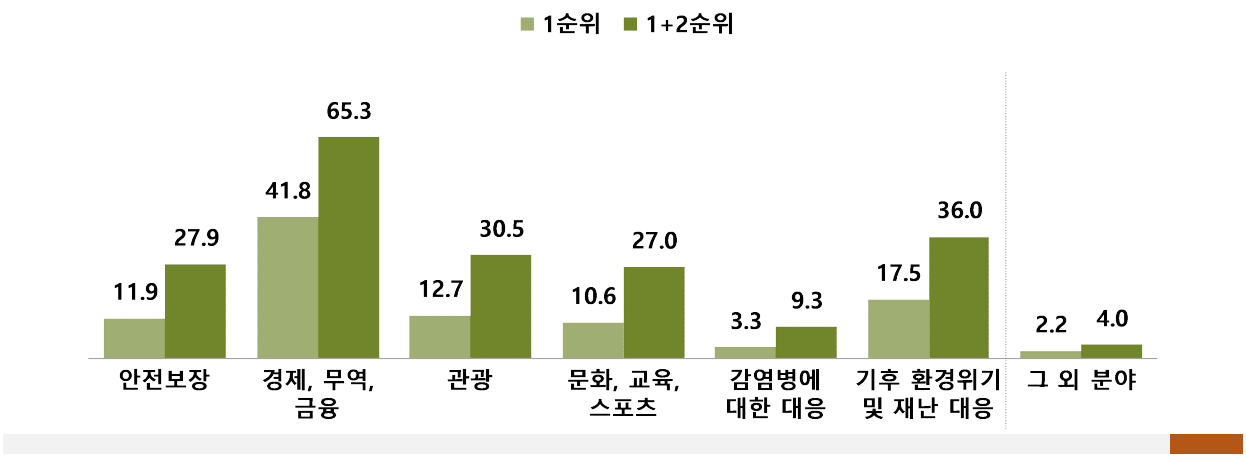


20) 한일 협력 필요 분야

○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가장 많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 분야를 조사한 결과, 1순위 응답 기준 '경제, 무역, 금융' 응답이 41.8%로 가장 높음

그림 20 | 한일 협력 필요 분야(1순위, 1+2순위)

n=전체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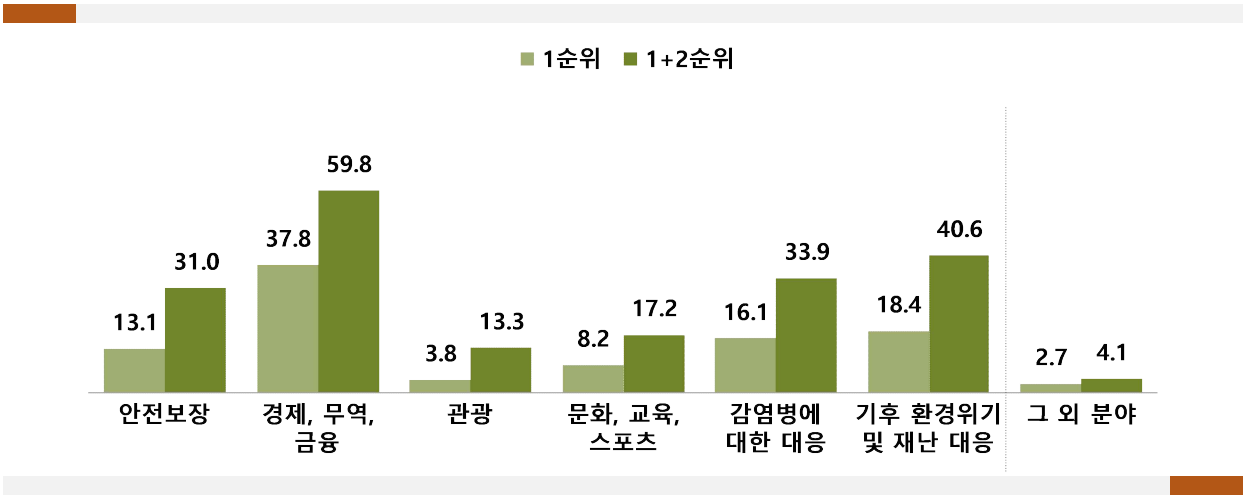


21) 한중 협력 필요 분야

○ 한국과 중국이 앞으로 가장 많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 분야를 조사한 결과, 1순위 응답 기준 '경제, 무역, 금융' 응답이 37.8%로 가장 높음

그림 21 | 한중 협력 필요 분야(1순위, 1+2순위)

n=전체 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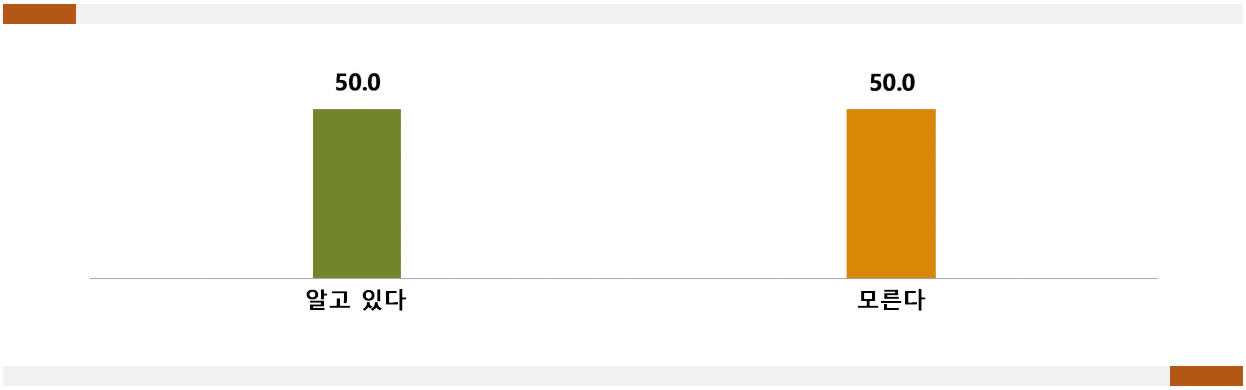
2. 국가별 문항 : 일본

1) 일본의 사죄와 반성 인지도

○ 일본이 19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, 1998년 김대중 대통령-오부치 총리 공동선언 등 공식적으로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/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사실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, '알고 있다'(50.0%) '모른다'(50.0%)로 동일한 응답 비율을 보임

그림 22 | 일본의 사죄와 반성 인지도

n=전체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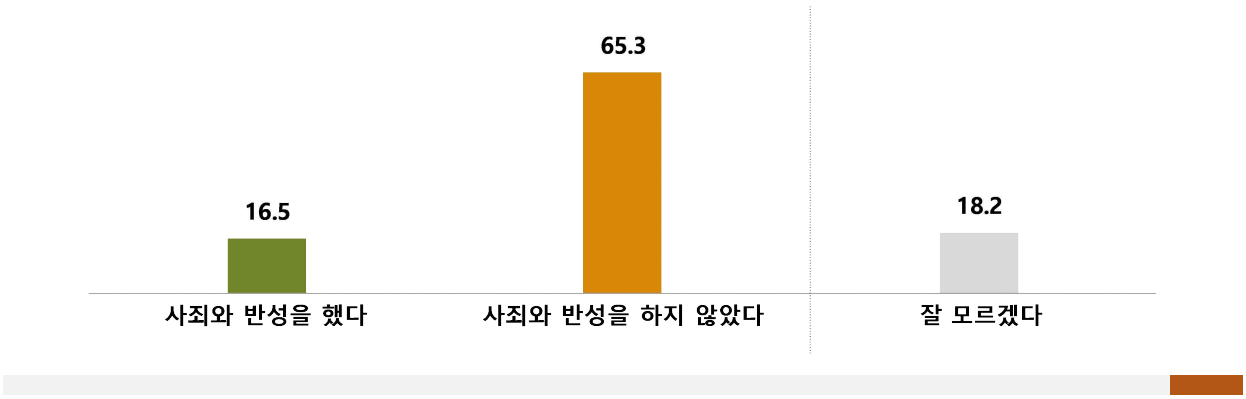


2) 일본의 사죄와 반성 인식

○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반성했다고 생각하는지 인식을 조사한 결과, '사죄와 반성 했다' 응답이 16.5%로 '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았다' 응답(65.3%) 대비 48.8%p 낮음

그림 23 | 일본의 사죄와 반성 인식

n=전체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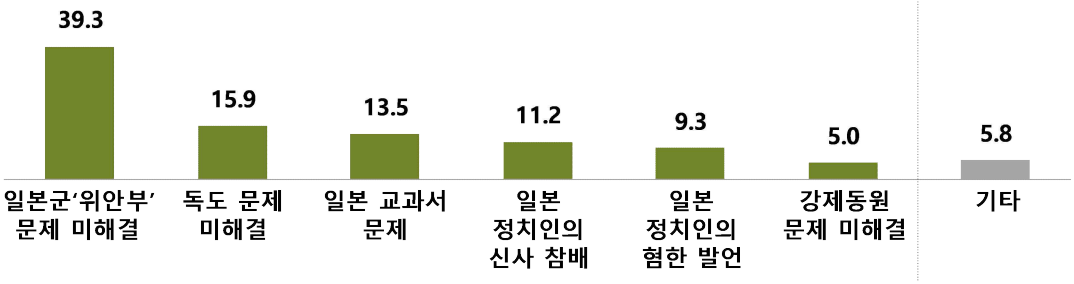


3) 일본이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

- 일본이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, '일본군'위안부' 문제 미해결' 응답이 39.3%로 가장 높음
- 그다음으로 '독도 문제 미해결'(15.9%), '일본 교과서 문제'(13.5%), '일본 정치인의 신사 참배'(11.2%) 등의 순임

그림 24 | **일본이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**

n(일본 사죄/반성 안함)=653명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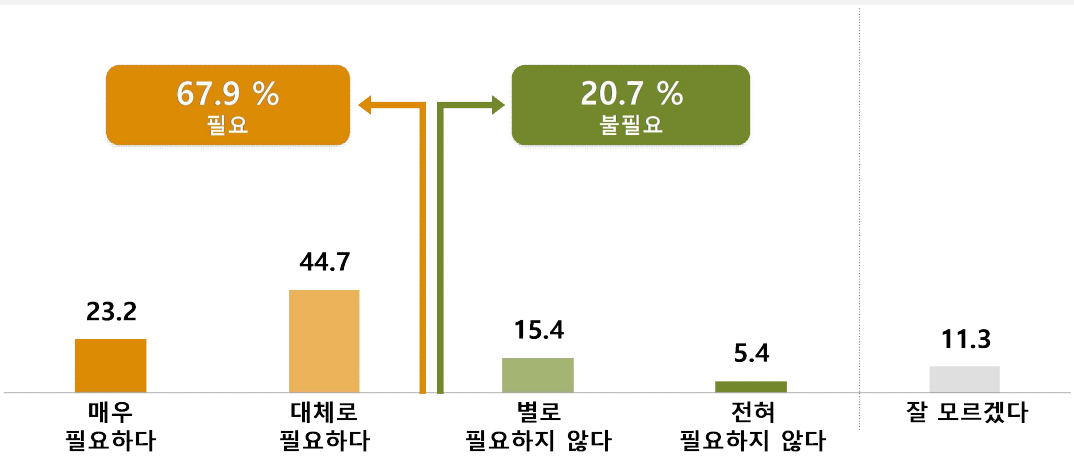


4) 새로운 공동선언의 필요성

-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조사한 결과, '필요'(대체로+매우 필요하다) 응답이 67.9%로 '불필요'(별로+전혀 필요하지 않다) 응답(20.7%) 대비 47.1%p 높음

그림 25 | **새로운 공동선언의 필요성**

n=전체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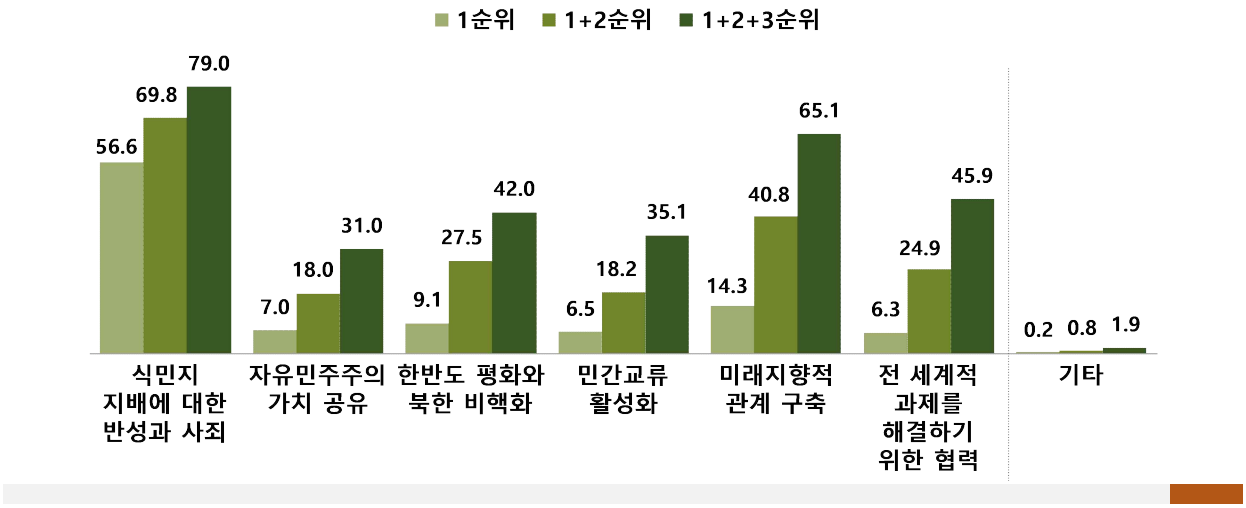


5) 새로운 공동선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

○ 새로운 공동선언을 만드는 경우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조사한 결과, 1순위 응답 기준 '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' 응답이 56.6%로 가장 높음

그림 26 | 새로운 공동선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(1순위, 1+2순위, 1+2+3순위)

n=전체 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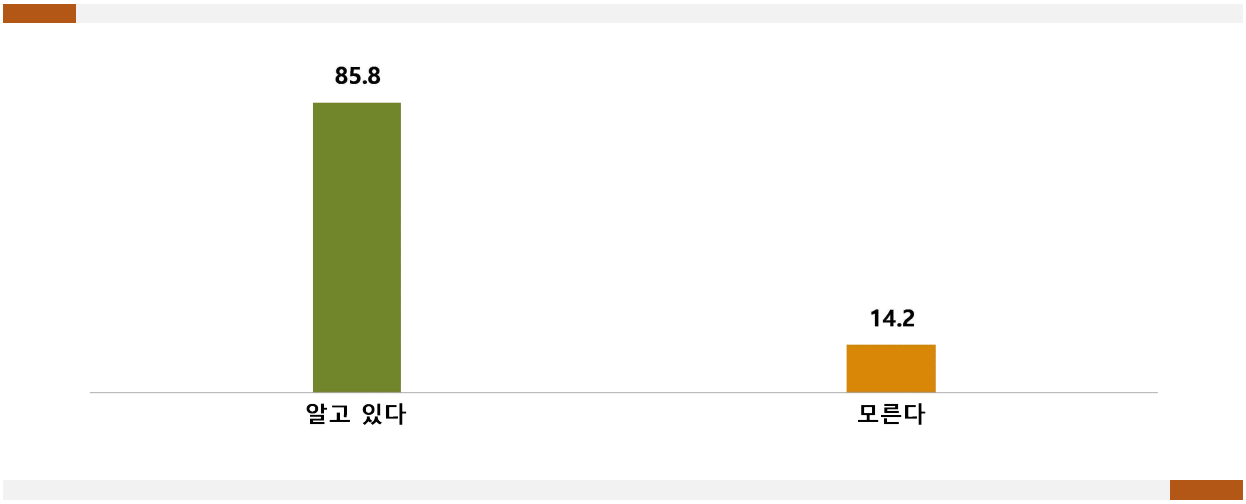
3. 국가별 문항 : 중국

1) 중국의 역사 왜곡 인지도

○ 중국이 고구려사를 비롯해 고조선·부여·발해의 역사를 자신들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, '알고 있다' 응답이 85.8%로 '모른다' 응답(14.2%) 대비 71.6%p 높음

그림 27 | 중국의 역사 왜곡 인지도

n=전체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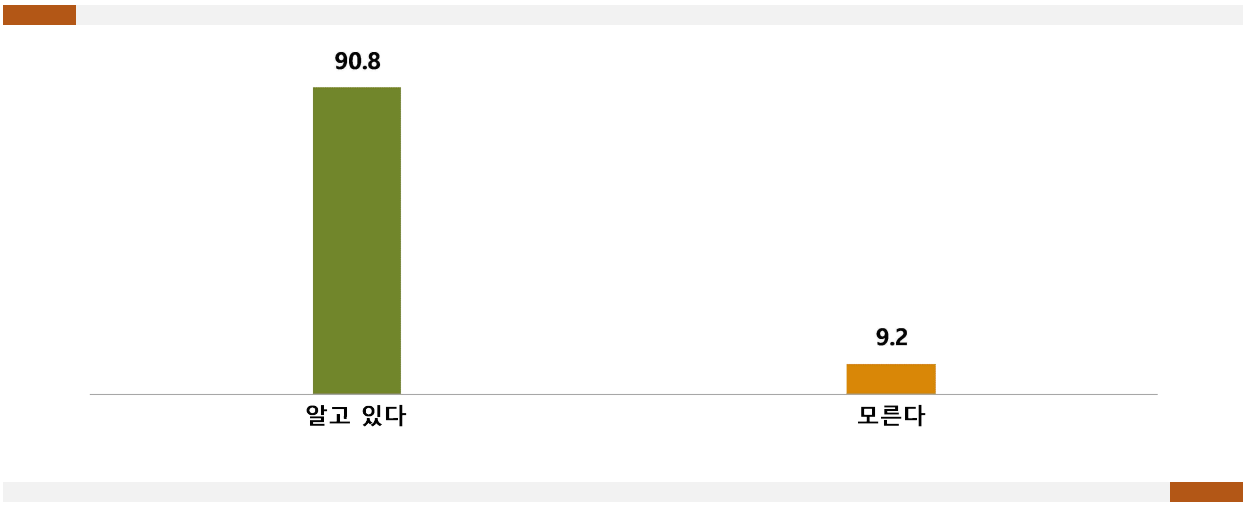


2) 중국의 문화 원조 논란 인지도

○ 중국이 '한복, 김치 등의 문화가 중국에서 기원하였다'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, '알고 있다' 응답이 90.8%로 '모른다' 응답(9.2%) 대비 81.6%p 높음

그림 28 | 중국의 문화 원조 논란 인지도

n=전체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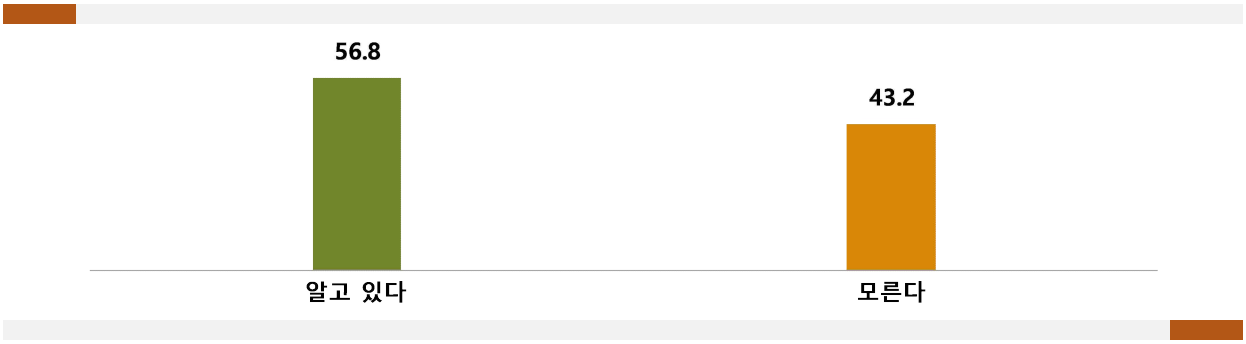


3) 중국의 역사 연표 논란 인지도

- 최근 중국 국가박물관이 청동기 유물전에서 한국 역사 관련 연표를 기재하는 가운데 부여·고구려·발해의 역사를 삭제한 사실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, '알고 있다' 응답이 56.8%로 '모른다' 응답(43.2%) 대비 13.6%p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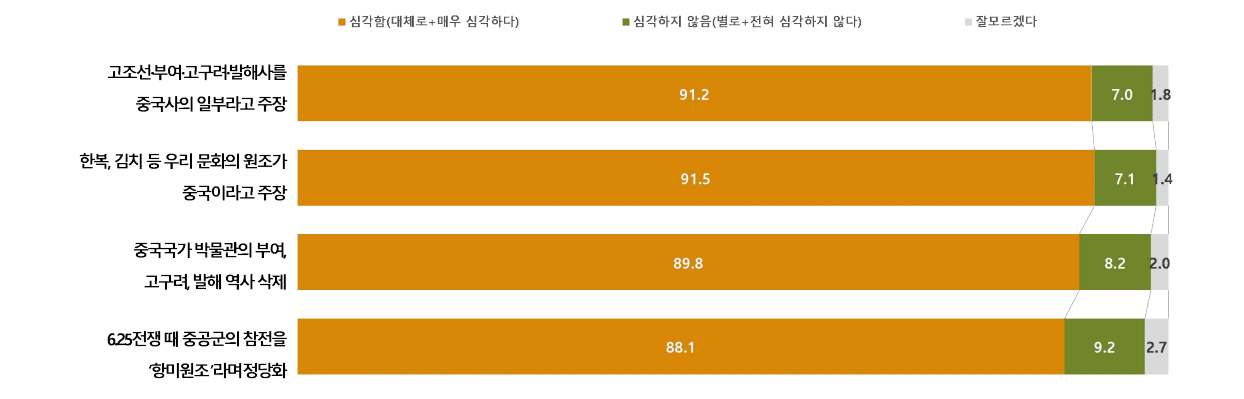
그림 29 | 중국의 역사 연표 논란 인지도

n=전체 (단위: %)



4) 중국의 역사 및 문화 관련 논란 심각성

- '고조선·부여·고구려·발해사를 중국사의 일부라고 주장'라는 의견에 '심각하다'(대체로+매우 심각하다)는 응답은 91.2%로 '심각하지 않다'(별로+전혀 심각하지 않다)는 응답(7.0%)에 비해 84.1%p 높게 나타남
- '한복, 김치 등 우리 문화의 원조가 중국이라고 주장'라는 의견에 '심각하다'(대체로+매우 심각하다)는 응답은 91.5%로 '심각하지 않다'(별로+전혀 심각하지 않다)는 응답(7.1%)에 비해 84.3%p 높게 나타남
- '중국국가 박물관의 부여, 고구려, 발해 역사 삭제'라는 의견에 '심각하다'(대체로+매우 심각하다)는 응답은 89.8%로 '심각하지 않다'(별로+전혀 심각하지 않다)는 응답(8.2%)에 비해 81.5%p 높게 나타남
- '6.25전쟁 때 중공군의 참전을 '항미원조'라며 정당화'라는 의견에 '심각하다'(대체로+매우 심각하다)는 응답은 88.1%로 '심각하지 않다'(별로+전혀 심각하지 않다)는 응답(9.2%)에 비해 78.8%p 높게 나타남

그림 30 | 중국의 역사 및 문화 관련 논란 심각성

n=전체 (단위: %)